<감정 호텔> 독서 활동지

글. 리디아 브란코비치 | 옮김. 장미란



학습지 제작자 | 이수아B, 정선양, 홍유정

<감정 호텔>

나만의 감정호텔에 어서오세요!

학습목표

1.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.
2. 감정, 정서와 관련된 한국어 단어를 학습할 수 있다.
3. 그림책을 통해 독서와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.

책을 읽기 전에 **책을 살펴 봅시다.**

- **모르는 단어를 동그라미로 표시해 봅시다.**

단어

지배인, 까탈스럽다, 까다롭다, 쉬 떠나지 못하고 , 벽이 흔들릴 정도로,
죄책감, 우울감, 수치심, 마음껏, 훌훌 털고,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,
눈코 뜰 새 없이 , 보살핌, 재촉하다, 아우성치면, 불안, 두려움, 주목받다,
버거워지면, 조르다, ~하는 법이 없다, 혼자 꾸려 가다, 어루만지다,
여기저기서 ~가, 찾아오다, 만족감, 안도감, 희망, 지루할 틈이 없다,
~하기 마련이다

- **표지를 보며 내용을 유추해 봅시다.**

표지

책을 읽는 중에 책 내용을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봅시다.

● **다음 중 올바른 것을 골라 표시해 봅시다.**

1) 슬픔의 목소리는 어떤가요?

작다	크다	넓다	좁다

2) 분노에게 필요한 방은 어떤 방인가요?

좁은 방	넓은 방	예쁜 방	이상한 방

3) 다음 중 분노가 변할 수 없는 감정은 무엇인가요?

죄책감	우울감	수치심	즐거움

● **다음 중 정답에 O/X 표시 해봅시다.**

1) 분노가 떠나면 찾아오는 감정은 평화이다.

O	X

2) 모든 감정의 크기는 똑같다. 모든 감정은 잘 보인다.

O	X

3) 감정들은 재촉해서는 안 되며, 다들 오고 싶을 때 오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야 한다.

O	X

책을 읽은 후에 나만의 감정 호텔을 그려 봅시다.

나의 손님(감정)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.